

일본 후지필름 다이오신스, 전략적 사업 재편 발표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 최근, 일본 최대 CDMO인 후지필름 다이오신스 바이오테크놀로지(Fujifilm Diosynth Biotechnologies)가 전략적, 고객 중심 사업 구조로 새롭게 재편한다고 밝힘.

- 후지필름 다이오신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품질 서비스와 세계적 수준의 성능으로 대규모 및 소규모 바이오의약품 기업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략적 사업부(Strategic Business Unit, SBU) 구조로 개편한다고 발표함.

□ 대규모 전략적 사업부(Large-Scale SBU) & 소규모 전략적 사업부(Small-Scale SBU)

- 대규모 SBU는 여러개의 20,000리터 바이옱리액터를 이용해 대량으로 세포 배양 생산을 해야 하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할 예정이며, 소규모 SBU는 200리터에서 2000리터까지의 바이옱리액터를 이용하거나 일회용 생산시스템을 이용해 전임상, 임상 1상, 2상, 3상 등 상업용 생산 전단계 까지 지원할 계획임.

- 대규모 SBU는 덴마크 힐레뢰드(Hillerød)에 있는 바이오의약품 제조 캠퍼스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홀리 스프링스(Holly Springs)에 건설 중인 최첨단 시설이 해당될 것임. 이 두 캠퍼스는 각각 북미와 유럽에서 가장 큰 세포배양시설이 될 것임.

후지필름 다이오신스는 2019년 바이오젠(Biogen)으로부터 8억 9000만 달러에 덴마크 힐레뢰드 생산시설을 인수하였으며 2026년까지 16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해 20,000리터 바이옱리액터 8대를 추가로 구축하여 현재 240,000리터 규모에서 400,000리터 용량으로 확장할 계획임.

또한, 14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홀리 스프링스에 건설중인 시설에는 20,000리터 바이옱리액터 8대가 구축되어 160,000리터 생산용량을 확보하게 되며, 필요시 최대 640,000리터까지 확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소규모 SBU는 영국 티스사이드(Teesside),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Research Triangle Park, 텍사스주 칼리지 스테이션, 매사추세츠주 워터타운,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사우전드 오크스에 있는 생산시설을 관할함. 소규모 SBU는 바이오의약품,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종양 용해 바이러스(Oncolytic virus) 및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공정 특성화 및 공정 개발과 같은 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후지필름 다이오신스는 새로 전략집행부서(Strategy & Executive Office)를 만들어 대규모 및 소규모 SBU로 재편된 구조 및 운영을 지원할 예정임.

-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Frost & Sullivan 자료에 따르면, '22년 글로벌 바이오 CDMO 시장은 전년 대비 14.1% 성장한 202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28년까지 연평균 15.3%로 성장해 '28년에는 47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22년 기준 매출면에서 스위스 Lonza는 20.7%를 차지해 시장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Catalent를 비롯해 한·중·일(삼성바이오로직스, 우시바이오로직스, 후지필름다이오신스) 기업들이 상위권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 CDMO 후발주자로 공격적으로 생산 캐파와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 후지필름다이오신스의 이번 대규모 및 소규모 서비스 고객에 맞춰진 차별화된 사업 재편이 고객 확보, 시설 운영 효율화, 매출 등에 있어 실제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CDMO 업계는 주목하고 있음.

<참고자료>

1. FUJIFILM Diosynth Biotechnologies Announces New Strategic, Customer-Focused Business Structure, FUJIFILM Diosynth Biotechnologies 보도자료, 2023.8.24
2. Fujifilm reveals 'little and large' strategies for its CDMO business, BioProcess International, 2023.8.25
3. 해외 주요 CDMO 2022년 경영 실적, 한국바이오협회 이슈브리핑, 2023.5.19